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ior Components of the Art Museums in Beijing

Author 박선영 Park, Sun-Young / 정회원, 중국 청화대학교 환경예술설계학과 석사과정
이 민 Lee, Mi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조교수, 예술학 박사*

Abstract Beijing, the capital city of China, has gradually increased its amount of culture space and has also introduced a diverse range of cultural facilitie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its citizens lives. In particular are its art museums, which are a symbol of the urban culture and enrich the cultural life of its citizens and are also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psychological pivot point.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ethics, local, and the influence on the museums of China, studies which analyze the exterior of the art museums are not sufficient. This is because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too heavily on the interior of the art museums. This paper aims to derive distin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terior of several art museums and present design factors and application methodology. This research looks at art museums in China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museums that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culture of Beijing. Through analyzing the case study of five art museums that have been selected in Beijing we can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space and derive distinct design factors. Distinct factors in the exterior of art museums include connection, culture, geographic features, public, and cre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at exterior of the art museum will be as a contact zone to form a spatial connection and a cultural symbol that can reflect Beijing's unique culture characteristics.

Keywords 북경, 예술박물관, 외부환경, 구성요소
Beijing, Art museum, Exterior, Component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데이비드 캐리에(David Carrie)는 “오늘날 미술관을 단지 미술작품을 보는 장소로 취급하는 것은 더 이상 실행가능하지 않다.”¹⁾라고 하였다. 중국 역시도 예술품 보관과 실내 전시 중심의 성향에서 벗어나 시대문화를 반영하는 관람객 중심의 공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술박물관²⁾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역할이 발전함에 따라 개방적이고 대외적인 프로그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외부환경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 역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北京)은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역사 문화의 명승지이자, 중국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다. 중국 정부는 <북경시 “11·5” 시기 문화사업발전

계획(北京市“十一·五”時期文化事業發展規劃)³⁾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적 문화시설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2·5 에서도 북경의 문화공간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술박물관⁴⁾은 도

- 1) David Carrie, Museum Skeptism : A history of the display of art in public galleries. Duke University, 2006, p.197
- 2) 중국의 예술박물관(藝術博物館)은 Art Museum으로 미술관(美術館), 예술관(藝術館), 미술박물관(美術博物館))이라는 명칭이 모두 포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예술박물관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 3) “11·5”는 11번째 5년 단위 계획을 뜻한다. 중국 국민 경제 발전의 중요부분인 건설항목, 생산력 분포 등 국민경제발전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는 장기계획이다. 1949-1952년(중국 국민경제 회복시기), 1963년-1965년(국민 경제조정시기)을 제외하고, 1953년부터 첫 5년 계획을 시작하여, 2011년부터 12번째 5년 계획으로 진행된 상태이다. <中國文化產業 공식사이트 <http://www.cnci.gov.cn> 내용참고>
- 4)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박물관/미술관으로 분류하고, 한국 또한 이를 따르고 있지만, 중국은 한자사용으로 전시공간에 해당하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북경시 문물국에 등재된 전시위주의 공간으로는 박물관, 기념관, 전람관, 진열관, 문물관리 및 문물보관소 등이 있고, 예술품 위주의 전시공간으로 예술박물관, 미술관, 예술관, 진열관, 화랑 등이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in818@hanmail.net

심문화의 상징물로서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함은 물론,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소장품 보관과 연구 중심의 박물관 초기 단계의 역할로 시설의 규모나 전시 콘텐츠의 중요성에 비해 그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차별성을 추출하여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대표사례분석을 통해 외부환경 구성요소를 분석·종합함으로써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북경 예술박물관 주변 환경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문화상징체로서 진일보된 입지를 갖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지역적으로 북경을 선택한 것은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근현대 중국의 여러 사회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규모와 성향의 예술박물관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일정 수 이상의 사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한 중국 예술박물관의 선택 기준을 보면, <박물관 평가 시행표준(중국 국가문물국)>⁵⁾에 따라 구분된 1급, 2급, 3급의 박물관 중, 3급에 1개소만이 예술박물관으로 선정⁶⁾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경박물관연감』⁷⁾을 참고하여 북경을 대표하여 최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곳으로 선별하였고, 그 중 신중국 수립 이래 최초로 건립된 중국 미술관(1963년) 이후의 예술박물관들로 한정하였으며, 관련한 문헌조사와 현장 관찰을 실시하여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연구 진행 방법으로는 첫째, 해외선진사례를 통해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북경지역에 적용하기 적합한 특성으로 5개의 차별성을 추출하여 관련한 구성 요소를 제시하며, 분석의 틀로 삼는다. 둘째,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사례대상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한다. 분석내용을 취합한 것을 기반으로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제언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된 중국의 박물관 연구는 총 16건⁸⁾이다. 공식적으로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크게 내용상 박물관의 발전사, 공간연구, 전시 디자인, 주제(관점) 연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 형식으로는 박물관 유형연구, 개괄연구, 지역연구, 비교연구로 분리할 수 있다. 2011년 이전까지 주로 변천사를 다루거나 각론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심화연구로 진입하는 추세이다. 다만, 중국의 민족적, 지역적 특성상, 양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박물관 특유의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부분은 초기 단계로 박물관의 실내 공간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박물관 중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경지역 예술박물관의 외부환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중국 관련된 문화공간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 예술박물관 외부환경 고찰

2.1. 예술박물관 외부환경 개념

일본의 아시하라(Y.Asihara)는 ‘외부공간이란 자연 속에서 자연을 한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외부공간은 지붕 없는 건축이고 대지가 아닌 ‘외부 행위의 장’이라고 할 때 외부공간은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단순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내·외부공간을 연결

8) <표 1>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목록

No.	제목	저자	유형	년도
1	중국 자연박물관의 현황, 구조 및 발전추세의 조사보고	왕계군 외	학회	1993
2	중국에서 과학박물관의 위치와 역할	주국홍	학회	1993
3	中國의 博物館	오일환	협회	1998
4	중국박물관들의 전시환경 변화	나선화	협회	1999
5	韓·中國간 展示 空間 비교研究	김태홍	학위	2005
6	예고 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신현오	학위	2005
7	中國의 生態博物館(예고뮤지엄)形成과 實態에 관한 연구	오일환	학회	2006
8	중국 대학박물관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연구	오일환	학회	2008
9	중국박물관 호북성 박물관55주년 기념	여로	학위	2010
10	중국(中國) 북경박물관관람보고	김항목	학회	2011
11	I. M. Pei 건축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양시명	학위	2011
12	2000년 이후 중국뮤지엄의 공간구조변화에 관한 사회적 의미 연구	송령영	학위	2012
13	중국의 박물관현황과 대학박물관 발전방향	송상광	학회	2012
14	중국 박물관의 전시현황에 관한 연구	왕오기	학회	2012
15	한·중 박물관 옥외공간 공공디자인 비교연구	장철명	학위	2012
16	중국박물관의 전시연출기법 개선방안연구	왕오기	학위	2013

- 5) 박물관의 평가등급은 박물관 종합관리와 기초시설, 소장품 관리, 과학연구, 전시 및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3단계(급)로 구분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물국의 제 1,2차 박물관 평가를 통해 현재(2013년 5월) 중국 전국의 1급 박물관은 100개소, 2급박물관은 총 223개소, 3급 박물관은 총 432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등급 평정은 3년마다 실시된다.
- 6) 국가 3급박물관 명단에 지정된 총 432개소 중 북경 소재의 3급 박물관은 총 8개소이다. 예술박물관으로는 북경석각예술박물관(北京石刻藝術博物館) 1개소만이 3급박물관 목록에 지정되어 있다.
- 7) 북경박물관연감은 1912-1987, 1988-1991, 1992-1994, 1995-1998, 1999-2003, 2004-2008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총 6권이 출판되었다. 북경박물관연감 2004-2008은 현재 총 135개소가 등록되어 있다.(孔繁峙 外編, 北京博物館年鑒, 北京博物館學會, 北京燕山出版社, 北京, 2009)

시키고 이용자에게 공간을 인식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공간인 것이다.⁹⁾ 물리적인 외부환경은 좁은 의미로는 공간이 구성되는 지점을 둘러싼 대지와 의 관계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규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전시 공간 자체의 구성적 특성과 전시실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¹⁰⁾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에서 중심 건축물을 둘러싼 대지만을 뜻하지 않는다. 예술박물관과 주변 지역과의 경계를 완화하여 두 영역간의 유기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가운데 예술박물관의 지향점을 대외에 제시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정한 외부환경은 예술박물관 대지면적 중 실내전시 공간 이외에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일체(건축물 외관 포함)를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으로 본다.

<그림 1>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범위 도식화

2.2.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차별성 도출 과정

예술박물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내중심의 전시공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대중에게 더욱 개방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문화영역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외부환경 활용이 돋보이는 해외유명 예술박물관 이해를 통해,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차별성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대상은 문화중심지에 위치하는 예술박물관으로 개관 시기는 195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며, 전시면적에 비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환경을 포함한다. 이에 루이지아나 현대미술관(Louisiana Museum, 1958), 장 텅겔리 뮤지엄(Jean Tinguely Museum, 1993),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2004), 서울대학교 미술관(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뉴 덴버 아트뮤지엄(New Denver Art Museum, 2008)을 선정하였으며, 모두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차별성이

확인되어 이후 배경 소재 예술박물관의 선진화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루이지아나 현대미술관 조각공원
출처: www.cntraveller.com

<그림 3>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야외 체험공간
출처: muza-chan.net

빌헬름 볼러트(Vilhelm Wohlert)와 요르겐 보(Jorgen Bo)의 루이지아나 현대미술관(Louisiana Museum)은 건축, 미술, 자연이 통합된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래 위치한 건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그대로 살려 설계하고 증축과정을 통해 점차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넓게 펼쳐진 자연공원은 훼손을 최소화하여 친자연적 성격을 강조하고 조형예술작품이 어우러져 예술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화된 예술을 체험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4> 장 텅겔리 뮤지엄과 19세기 공원
출처: www.archidata.co.kr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장 텅겔리 뮤지엄(Jean Tinguely Musuem)은 미술관 대지가 가지고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라인강에 바로 인접하는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석재와 재해석된 포르티코로 문화적 감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된 외부환경은 19세기 공원과 연결되어 동서측 방향을 강조하고 예술 관람과 동시에 휴식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이다.

SANAA 스튜디오는 작은 소도시인 가나자와에 동시대, 지역주민, 지역전통, 어린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을 디자인했다. 미술관 주변부는 무료로 공개되어 개방적 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보 전달력이 높고 예술박물관 전체디자인과 일체하는 안내 사인물과 다양한 방향의 출입구로 방문객을 배려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9) Yoshinobu Ashihara, 건축의 외부공간, 김경동 역, 기문당, 1991, pp.15-18

10) 권영걸 외, 작품-인간-환경의 관계설정에 따른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45호, 2004, p.130

<그림 5> 서울대학교 미술관 주출입구

<그림 6> 덴버 아트뮤지엄 조각물 출처: photo by Caley Kunchinski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서울대학 미술관(MoA)에서 주도로 미술관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동공간을 확보하여 캠퍼스와 캠퍼스 외부와의 연계성을 추구하였다. 지역사회와 캠퍼스를 연결하는 단독 보행로는 높은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고 미술관 내부로 자연스런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¹¹⁾ 부지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진입광장 속에서 사인물을 통한 실내전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전시작품으로 예술 체험을 강조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덴버 아트뮤지엄(New Denver Art Museum)의 경우, 인디언 미술이 주된 테마로 외부환경에 배치된 Y자형 조각물이 인디언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 실내공간과 연계되고 실내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데 예술박물관 본관 외부마감을 대표하는 티타늄 소재와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벤치, 가로등과의 색상이 일체감을 이루어 외부환경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표 2> 선진사례의 예술박물관 외부환경 차별성

	A	B	C	D	E
맥락	●	●	●	●	●
역사	●	-	-	-	●
지역	●	●	-	-	-
문화	-	●	-	●	●
자연	●	●	○	●	○
지형	○	-	-	●	-
체험	○	-	●	-	-
예술	●	●	●	-	●
개방	-	-	●	○	-
편리	-	-	●	-	●
공공	-	○	●	●	●

A: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Copenhagen, Denmark

B: Jean Tinguely Museum, Basel, Swiss

C: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Ishikawa, Japan

D: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E: New Denver Art Museum, Denver, USA

위와 같이 5개소 해외 예술박물관의 선진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바를 다점 처리 방식으로 합산한 결과 맥락 / 문화 / 자연 / 공공 / 예술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을 위한 분석틀로 삼는다.

3. 북경소재 예술박물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특성

3.1.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중국의 6대 고도(古都)중 하나인 북경은 금(金)나라(1153년) 때부터 현재까지 860여 년간 국가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한때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자취를 감췄지만 1978년 이후 개혁개방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중시 여겨 문물을 복원하고 있다. 근래에는 개별 문물을 넘어 사합원(四合院)과 후통(胡同)¹²⁾과 같은 영역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로 인해 북경의 문화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현대문화¹³⁾가 공존하는 특유성을 띠고 있다. 도시구조에 있어 왕궁의 위치와 구조적인 형태가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구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 패턴의 도시구조로 발전하였다.¹⁴⁾

<그림 7> 북경의 도시구조

북경에서 개관 시기가 가장 이른 곳은 중국미술관(中國美術館, 1963)으로 개관 시기는 남방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북경 박물관연감을 토대로 예술박물관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12) '후통(HuTong, 胡同(衚衕))'은 원(元)나라 사람들이 거리(街巷)를 일컬어 부르던 것으로, 이후 북방 언어에서 골목을 부르는 통칭어로 사용됐다. <正字通·行部>에 보면, "衕"은 "衕衕", 즉 길을 이르는 말이며, 현재 북경 사람들은 골목(거리, 길)을 일컬어 衕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辭海編輯委員會, <辭海>1999年 普及本,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0, p.4280)

13) CBD(북경 동쪽에 위치한 조양구(朝陽區)의 상업중심지구)에는 렘 쿨하스 설계의 중국중앙방송(CCTV) 신청사, 자하디드의 Galaxy SOHO, 스티븐 홀의 Linked Hybrid(當代 MOMA), 2008북경 올림픽 경기장 단지에는 헤르조그 드 메론(Herzog & De Meuron) 설계의 올림픽 경기장 나오후(鳥巢), 중국 건축가 자오샤오쥔(趙小鈞)의 웨이리팡(水立方) 등이 자리 잡고 있다.

14) 王恩涌, 북경의 형성과 개발 및 보존, 서울학 연구 Vol.1 No.4, 1995, p.223

15) 孔繁峙 外編, 전계서, 2009

11) El croquis, OMAMO Rem Koolhaas 1996-2007 II, 2007, p.281

<그림 8> 북경 소재 박물관과 예술박물관의 수량 변화

중국의 양대 미술대학(청화대학 미술학원/중앙미술학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미술관 뿐만 아니라 집단 성향을 띠는 예술특별지구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798 예술구¹⁶⁾의 영향으로 일대에는 주류공장지대를 갤러리로 바꾼 지우창(酒廠)예술구, 방공호를 활용해 창작촌을 만든 송주양(宋莊)예술구 등 9개 지역의 예술촌이 생겨나¹⁷⁾ 예술 관련 문화공간이 점차 단지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9> 북경 따산즈(大山子) 798 예술구 실내외 전경

3.2.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고려사항

(1) 맥락

북경의 예술박물관은 도심에 자리하며,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변지역 사회와의 효과적 연계는 도시민에게 풍부하고 높은 예술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북경을 대표하는 예술특별지구들에 위치하는 예술박물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예술적 감성으로 채워져 있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잠재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여 실내와의 자연스런 연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독자적 성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지역과 예술박물관, 예술박물관 외부와 내부 등 상호간 맥락적 요소를 공유하기 위해 예술박물관의 특성이 묻어나는 영역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 16) 1957년 독일이 지원했던 공장 산업단지에서 국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이다. 초기에 주로 화랑과 작가들의 개인 작업실로 구성되어 북경 제1의 미술촌으로 변화했다.
- 17) 아시아 경제, 서울인사동과 북경798의 차이, 2013.01.09 기사 참고
현재 북경의 주요 예술구는 다음과 같다. 798예술구, 송주양(宋莊)예술구, 차오창터(草場地)예술구, 지우창(酒廠) 국제예술단지, 쑤오우오우디엔(周口店)국제예술구, 북경22원가(北京二十二院街)예술구, 환티에(环鐵)예술구, 이하오미(一号地)국제예술구, 팡지아(方家)후통 46호

(2) 문화

지역이 갖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은 풍부한 콘텐츠를 제시하는 장(場)이 된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기존의 전통 요소와 현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북경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적 디자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선호한다.

오랜 역사와 지리학적, 정치적, 도시구조, 문화유산이 공존하면서 개성이 묻어나고, 이러한 요소가 가미된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에서 도시민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자연

북경의 도시 및 근교 대부분은 넓은 면적의 평원에 위치하고 자연지모(地貌)가 많지 않고 지형의 굴곡이 거의 없는 평지다. 따라서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박물관이 고려할 주변 환경이란 자연적 환경보다는 인공적 환경에 집중된다. 특히 자연 강(江)이 없는 북경의 특수한 자연 상황상, 인공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풍토를 형성하여 수(水)공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물을 이용하여 방문객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4) 공공

접근이 용이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국의 사회적 공공문화공간의 요건이다.¹⁸⁾ 이를 위해 예술박물관 관람객과 지역민에게 물리적, 심리적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환경을 최대한 개방적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존재하는 주변 환경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시설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 중 안전하고 장애물이 제거되어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물 또한 필요하다.

(5) 예술

예술박물관은 위와 같은 여러 물리 환경적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 동시에 감성 자체를 자극하는 예술적 속성을 갖는다.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은 도시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색다른 창조적 행위¹⁹⁾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경

- 18) 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 2013.03.05 대회연설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2013년 3월 5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차 정부업무보고회의(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를 통해 공익적 성격을 갖는 북경의 박물관들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에 대해 전면 무료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나 중국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19) 의외로 북경의 현대인은 소규모 모임을 기반으로 한 합주, 붓글씨, 댄스, 수련, 사생 등 야외 문화행위를 보편화하고 있어, 일정한 터를 확보하면 어디서든 집단 모임을 갖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시민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예술박물관 외부공간에 적용하여 다양한 창조적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이 창조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주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 참관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예술박물관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3.3.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구성요소

<표 3>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차별성에 따른 구성요소

항목	구성요소	외부환경 차별화를 위한 내용
맥락	방향 축 (주변 환경)	공간적 축(Axis)을 형성하여 대칭 / 비대칭형 공간을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주변지역과도 방향성 연계
	연결공간 (실내외부)	주변 대지맥락을 반영한 계단 / 램프 / 다리 등의 구성으로 실내 공간과 연결
	이동동선 (진입부)	도로와의 거리 / 문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진입 동선 형성
	전시사인 (내용성)	예비관람자에게 배너/현수막/광고판 등 전시 내용 전달
문화	외관형태	북경 특유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디자인적 특성이 강조된 건축물
	마감재료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적 감성이 반영된 특유의 물성을 가졌거나, 이를 토대로 한 현대적 해석 가능한 자재
	장식	지역 요소가 두드러지는 장식 / 문양 / 결구방식 일체
	색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색상
자연	녹지	자연 색채(계절감)를 고려한 수목 / 잔디 / 초화류 식재
	수(水)공간	다양한 분위기 연출 가능한 물을 활용한 공간
	공원	대지환경 및 주변 지역민의 활동성을 반영한 경관조성
	산책로	바닥 지형과 주변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산책길
공공	안내사인	정보 전달력이 높고 전체디자인과 일체인 표지판
	시설물	외부작품을 관람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벤치 / 조명 쓰레기통 등 각종 외부 시설물
	바닥보도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애인 / 노약자를 위한 보도
	주차시설	개인교통수단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전동차 / 자전거 주차 공간
예술	야외무대	문화 영상물 상영 및 다양한 방식의 예술표현 공간
	광장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집단 활동 장소
	조형물	예술적 / 상징적 감각을 활용한 옥외 예술품
	아트조명	이색적 분위기 연출하는 아트조명

4.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4.1. 분석대상의 범위

분석대상인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북경박물관연감』의 예술박물관 18개소 중 본 논문의 의의에 부합되는 3개소와 현재 북경에서 대표되는 예술박물관 2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로 선정하였다.

<표 4>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분석대상

구분	예술박물관 명칭 (개관년도)	(자본) 관리부서
1	중국미술관(1963)	(중앙정부) 문화부(文化部)
2	염황(炎黃)예술관(1991)	(북경시) 북경시 문물국(文物局)
3	금일(今日)미술관(2006)	(민간+북경시) 북경시 통주구(通州區) 문화위원회
4	한미림(韓美林)예술관(2008)	(민간) 한미림(韓美林)예술관
5	중앙미술학원미술관(2008)	(중앙정부) 중앙미술학원

4.2. 사례분석

선정된 대상지별로 앞서 제시된 이론적 고찰 3.3 예술박물관 외부환경의 차별성과 구성요소의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분석기준 틀에 맞춰 맥락, 문화, 자연, 공공, 예술의 관점에서 외부환경 디자인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요점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1) 중국미술관(中國美術館, NAMOC)

<그림 10> 중국미술관 전경

중국 건국 10주년(1959)을 기념해 선정된 10대 건축물 중 하나이자 중국 최대의 국립미술관인 중국미술관은 북경 중심의 역사문화 보호구역에 자리한다. 1958년에 공사를 시작

하여 1963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 의해 ‘중국미술관(中國美術館)’이란 명칭으로 정식 개관하였다. 본관의 건축면적은 약 18,000m²로 5층 높이에 총17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면적만 약 8,300m²이며, 1995년 현대화된 수장고로 약 4100m²의 신관을 신축하였으며, 2003년 5월에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와 같이 개방하고 있다. 과거 역사의 상징인 고궁(古宮)박물관과 현대역사의 상징인 천안문 광장이 공존하는 지역에 주택과 후통이 둘러싸고 있다. 상징적으로 고궁과 같은 황색 유리기와(琉璃瓦)지붕과 대청을 강조한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북경 특유의 양식으로 조성되어있다.

<표 5> 중국미술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항목	구성요소				이미지
맥락	방향 축	연결공간	이동동선	전시사인
	동서축	계단	수직	배너/현수막 전자광고판	
문화	외관형태	마감재료	장식	색채
	전통중국식	유리기와 화강암대리석	홍등 전통문양	황색/붉은색	
자연	녹지	수(水)공간	공원	산책로
	계절식재 상록식재	x	x	소형 산책로	
공공	안내사인	시설물	바닥보도	주차시설
	시설안내 교통안내	벤치 / 램프 가로등 / 정원 쓰레기통	보도블럭	자동차	
예술	야외무대	광장	조형물	아트조명
	x	x	외부전시품	외관	

(2) 염황예술관(炎黃藝術館, Yanhuang Art Museum)

<그림 11> 염황예술관 전경

염황예술관은 20세기 중국 화(中國畫)의 대가 황조우(黃胄)선생이 앞장서서 본인이 소장한 대량의 작품과 여러 예술가들의 기증을 통해 건립된 중국 최초의 대형 민간 합작 현대화 예술박물관이다.

야원촌(亞運村)에 위치하며, 1989년에 건립되어 1991년 9월에 정식 개방되었으며, 건축면적 총 10,000m²이 훨씬 넘으며, 당송(唐宋)시대 건축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비대칭적이며, 피라미드식 지붕에 자주색 유리(琉璃)기와를 얹었다. 예술관 본관건축은 지상 2층 반, 지하 1층 반으로 되어있고, 9개의 전시실, 대회의실, 강당, 이사(사무)실, 수장고, 화실, 복원실, 기념품샵, 국제교류연합회, 촬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중국화 중심으로 작품 소장, 연구, 전시를 주로 하며, 고대 서예와 그림, 그리고 문헌과 예술작품 역시 소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대중의 문화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예술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 염황예술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항목	구성요소				이미지
맥락	방향 축	연결공간	이동동선	전시사인
	동서축	계단	수직/사선	현수막	
문화	외관형태	마감재료	장식	색채
	전통/현대 절충식	유리기와 석판	x	자주색 비취색	
자연	녹지	수(水)공간	공원	산책로
	계절식재/ 상록식재	x	x	개방형 산책로	
공공	안내사인	시설물	바닥보도	주차시설
	x	벤치/쓰레기통 가로등/정원등	보도블럭	자동차	
예술	야외무대	광장	조형물	아트조명
	x	x	x	x	

(3) 금일미술관(今日美術館, Today Art Museum)²⁰⁾

<그림 12> 금일미술관 전경

금일미술관은 2006년 중국이 WTO 가입 후 국제 미술관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최초 민간 비영리 예술 기관이자 미술관으로 인정되었다. 화랑형식의 미술관으로서 본관의 건축면적은 약 4,000m²에 이르며, 2002년 해정구(海澱區)에 성립되었고, 2006년 조양구(朝陽區) 22원가 예술구(二十院街)²¹⁾로 옮겨와 1-3관에 이르는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1관은 옛 북경 맥주공장 보일러실을 개조한 단독 건물이며, 제2관, 제3관은 22원가 예술구 남측 건물동 내에 위치한다. 구 공업시대의 흔적과 현대 이념이 결합되어 건축의 예술성과 기능성의 유기적 결합을 고려한 전위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의 예술 박물관으로 완성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삼아, 사실 미술관으로 시작되어 학술적, 현실적으로 당대예술의 총체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어, 중국미술발전역사에 상당한 입지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20) 제1관 건축동은 단독으로 존재하고 제2, 3관은 22원가 예술구 건축동 내에 위치하므로 본 논문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실질적 분석은 금일미술관 제1관만 진행하도록 한다.

<http://www.todayartmuseum.com>

21) 22원가 예술구는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내에 형성된 도심 속에 위치한다. 예술가를 위한 작업실, 거주공간, 부대시설이 공존하며 건물 사이 400m에 달하는 거리는 예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표 7> 금일미술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항목	구성요소				이미지
맥락	방향 축	연결공간	이동동선	전시사인
	동서축	램프	자유	현수막	
	동서축이 강조된 22원가예술구 건축동과 나란한 방향으로 배치되고 대칭형 공간 구성 22원가예술구 내에서 자유동선으로 이동하여 '之'형 램프'까지 입구에 도달				
문화	외관형태	마감재료	장식	색채
	재생식	적벽돌/금속	기하학문양	갈색	
	과거 공업시대 건축물의 현대적 재생으로 북경 현대 건축성향 돋보임 보일러실을 연상시키는 금속 사다리꼴의 주출입구와 벽돌로 채워 넣은 창문들은 역사문화 반영				
자연	녹지	수(水)공간	공원	산책로	-
	X	X	X	X	
	22원가예술구의 조경식재를 제외하고 금일미술관 외 부환경을 위한 수목과 잔디 등의 자연공간 부족				
공공	안내사인	시설물	바닥보도	주차시설
	X	X	보도블럭	자동차	
	22원가예술구에 외부환경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 입구전면의 넓은 공간은 자동차 주차시설로만 이용되며 보도 블럭의 평탄도가 낮아 편리성이 떨어짐				
예술	야외무대	광장	조형물	아트조명
	X	X	외부전시품	색 대비	
	입구전면에 설치된 위에민진(岳敏君)의 대형금속작품을 통해 중국현대미술을 이해하고 상호교감 가능 색 대비를 통한 주출입구에 야간경관에 대한 고려				

(4) 한미림예술관(韓美林藝術館, Hanmeilin Art Museum)

<그림 13> 한미림예술관 전경

한미림예술관 북경점(22)은 북경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푸와(福娃:북딩이)로 유명한 당대 화가이자 공예 미술의 대가인 한미림(韓美林)이 2008년 북경근교 통조구(通州區)²³⁾에 개관한 중국 최대의 개인 예술박물관이며, 본래 항주(杭州)에서 먼저 개관하였다.

한미림예술관은 한미림이 직접 공간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참여했으며, 2013년 개조공사 후 건축면적이 약12,000m²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관 건축(북쪽 전시구역)은 대칭형태의 평면구성으로 건물자체의 외형은 회백색 현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노출 콘크리트 위에 목재를 덧붙여 섬세한 재료미가 돋보인다. 내부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4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1층에 2개, 2, 3층에 각각 1개씩 있어 조각, 도자, 서예, 회화 작품을 주로 다룬다.

한미림예술관은 한미림이 직접 공간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참여했으며, 2013년 개조공사 후 건축면적이 약12,000m²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관 건축(북쪽 전시구역)은 대칭형태의 평면구성으로 건물자체의 외형은 회백색 현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노출 콘크리트 위에 목재를 덧붙여 섬세한 재료미가 돋보인다. 내부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4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1층에 2개, 2, 3층에 각각 1개씩 있어 조각, 도자, 서예, 회화 작품을 주로 다룬다.

22) 한미림예술관은 남과 북,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누어진다. 북쪽 전시구역에는 도자기관, 종합관, 조각관, 서화관, 신작관, 영상홀이 있고, 남쪽은 설계관 수고관, 자사관, 도시 조각홀을 포함해 전시품이 총 2,600여 건이나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료로 상설전시를 개방하고 한미림 예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북쪽 전시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http://www.hanmeilin.com/museum_b.php)

23) 2005년 국무원의 <북경시총체계획(北京市總體計劃)>에서 한미림미술관이 자리한 통주(通州)를 북경중점발전도시 중 하나로서 "지역서비스의 중심, 문화산업의 기지, 주변거주 신도시"라는 목표 아래, 북경의 미래발전을 지원하는 중요 지역으로 정하였다.

<표 8> 한미림 미술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항목	구성요소				이미지
맥락	방향 축	연결공간	이동동선	전시사인물
	남북축	다리	사선	x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원진(梨園鎭)주제공원 북측에 배치되며 남북축이 강조된 대칭형태의 외관사선 동선으로 이동, 다리로 연결된 2층 주입구에 진입 후 수(水)공간을 지나 공원지면 출구에 도착
	외관형태	마감재료	장식	색채	
자연	현대식	노출콘크리트	기하학문양	회백색 붉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대건축의 대표재료 노출콘크리트 사용과 미니멀한 박스형태의 볼륨에서 현대미 추구수(水)공간 바닥면은 나무토막과 기와장을 반복적으로 겹쳐 기하학 문양 표현				
자연	녹지	수(水)공간	공원	산책로
	계절식재 상록식재 입면녹화	연못형	x	산책로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적인 분위기의 수변공간과 입면 녹화를 이루는 냉쿨식재, 식재의 혼용으로 계절감 돋보임이원진 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의 수목과 자갈밭 산책로로 인공 자연환경 조성
	안내사인	시설물	바닥보도	주차시설	
예술	시설안내 표도안내	가로등/바닥등 쓰레기통	보도블럭	자동차/전동차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도블럭의 패턴/재료 다양화로 변화를 주었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자동차 주차공간뿐 아니라 전동차와 자전거를 위한 보관대 설치로 편리성 높임				
예술	야외무대	광장	조형물	아트조명	
	x	x	외부전시품	x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미림의 외부전시품으로 예술적 분위기 연출이원진(梨園鎭)주제공원의 야외무대와 광장을 공간적으로 연결시킨다면 예술표현공간으로 활용 가능				

(5) 중앙미술학원미술관²⁴⁾

(中央美術學院美術館, CAFA Art Museum)

<그림 14>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전경

2008년 3월 중앙미술학원 캠퍼스에 준공되어 학교의 대표적 전시공간으로 기성작가들 및 학생들의 작품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²⁵⁾가 건축설계를 담당하여 기존의 중앙미술학원 캠퍼스를 채우고 있는 갯빛 건물들 사이에서 예술박물관으로서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외관 형태를 토대로 회녹색 석판으로 전체 외벽을 처리하여 주변색채와 비례감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차별성을 갖는다. 미술관은 대지면적 3,546m²에 건축 면적 14,777m²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중앙미술학원미술관(구, 중앙미술학원 진열관)은 중앙미술학원이 왕징으로 이전하면서 2008년 3월 캠퍼스 동북측에 미술관 자리를 잡아 북경예술교육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되었다.

25) 그는 기본적으로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유와 조월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술관 설계를 진행하였다. <http://www.cafamuseum.org>

<표 9> 중앙미술학원 미술관의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항목	구성요소				이미지
맥락	방향 축	연결공간	이동동선	전시사인
	x	다리	수직/사선	현수막	
	▪ 두드러지는 공간적 축이 없고 비대칭형 공간을 구성하며 왕징(望京) 지역의 문화교류 역할 ▪ 두 개의 캠퍼스 문으로 진입 후 실내공간과 연결된 20m길이의 다리까지 수직/사선의 결합동선 이동				
문화	외관형태	마감재료	장식	색채
	절충식	천연 슬레이트판	x	회녹색	
	▪ 일본의 전통성과 현대미가 결합된 절충적 외관으로 입체성 강조 ▪ 중국 산시성(山西省)에서 생산되는 천연 슬레이트판으로 지역감성 표현				
지형	녹지	수(水)공간	공원	산책로
	계절식재 상록식재	주변시설 관련 수공간 존재	x	x	
	▪ 본 바닥지형을 따르는 곡선 벽체 주변으로 계절식재와 상록식재가 혼용되어 캠퍼스 자연경관과 조화				
공공	안내사인	시설물	바닥보도	주차시설
	교통안내	정원등	보도블럭	x	
	▪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내표지판이 존재하지만 사설안내표지판 취약하고 정원등 외 조명 부족 ▪ 자동차/전동차/자전거를 위한 주차공간은 캠퍼스 내에 마련된 시설로 이용				
예술	야외무대	광장	조형물	아트조명
	x	소형광장	외부전시품	x	
	▪ 입구와 연결된 다리 하부공간에 1,800m ² 의 광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계절에 따라 노천카페로 사용 ▪ 중앙미술학원 학생들의 작품 전시로 예술적 분위기 조성				

4.3. 사례분석 결과에 따른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적용 상황을 북경의 대표 예술박물관 5개소에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종합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0>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외부환경 구성요소 분석 종합

* 1. 중국미술관 2. 염황예술관 3. 금일미술관 4. 한미림예술관 5.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 a-c의 기준은 우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향을 제시하는 표기				
항목	구성요소			
맥락	(A) 방향 축	(B) 연결공간	(C) 이동동선	(D) 전시사인
(A)	기준	a.없음 b.마주하는 도로와 축형성 c.예술박물관 건물간의 축형성		
	내용	중앙미술학원미술관을 제외한 4 개의 예술박물관은 각각 동서축, 남북축을 강조하여 대칭형과 비대칭형 공간을 구성		
(B)	기준	a.계단 b.램프 c.다리		
	내용	5개소 모두 주변 대지맥락을 반영하여 각각 계단, 다리, 램프로 실내외 공간 연결		
(C)	기준	a.수직/수평/사선 중 1개 b.수직/수평/사선 중 2개 이상 c.자유		
	내용	도로와의 거리, 문의 위치나 유무에 따라 3개소에서 수직/수평 동선을, 나머지 2개소에서 사선동선과 자유동선을 이용		
(D)	기준	a.없음 b.전시방법 1개 c.전시방법 2 개 이상		
	내용	중국미술관에서 현수막/전자 광고판으로 전시 홍보효과를 증대시킨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은 대외 홍보에 소극적임		

	(E) 외관형태	(F) 마감재료	(G) 장식/문양/결구	(H) 색채
문화				
	기준	a.전통식 b.절충식 c.재생식/현대식		
(E)	내용	외관형태는 중국미술관이 전통식을 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절충, 재생, 현대적으로 북경특유의 문화성 표현		
	기준	a.특이사항 없음 b.지역대표재료의 적용 c.현대적 해석된 재료		
(F)	내용	한미림 예술관을 제외한 4 개소에서 지역대표재료를 사용하여 지역감성을 표현		
	기준	a.없음 b.장식/문양/결구방식 중 1 c.장식/문양/결구방식 일체		
(G)	내용	중국미술관 1개소만 집중적으로 색상과 장식, 문양, 결구방식의 일체가 중국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반영		
	기준	a.없음 b.지역주민 선호 혹은 지역대표 색상 c.지역주민 선호 및 지역대표 색상		
(H)	내용	5개소 모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거나 지역성을 반영하는 물성을 갖는 색채 적용		
지형	(I) 녹지	(J) 수공간	(K) 공원(터)	(L) 산책로
(I)	기준	a.계절식재/상록식재 부족 b.계절식재/상록식재 혼용 c.계절식재/록식재 혼용 및 인공시설 벽면 녹화		
	내용	5개소 모두 평지에 위치하며, 금일 미술관을 제외한 4개소에서 계절을 고려한 식재로 구성된 인공적 자연환경 부각		
(J)	기준	a.없음 b.주변 환경에 존재 c.단독 형성		
	내용	한미림예술관 1개소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수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K)	기준	a.없음 b.주변 환경에 존재 c.단독 형성		
	내용	한미림예술관만이 입면 녹화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4개소는 대지환경과 지역주민들의 활동성을 반영한 공원(터) 부족		
(L)	기준	a.없음 b.단독 형성 또는 활용도 낮음 c.단독 형성 및 활용도 높음		
	내용	한미림 예술관을 제외하고는 없거나 단독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활용도가 낮은 편임		
공공	(M) 안내사인	(N) 시설물	(O) 바닥보도	(P) 주차시설
(M)	기준	a.없음 b.시설안내표지판 또는 교통표지판 유무 c.시설안내표지판 및 교통표지판 유무		
	내용	염황예술관과 금일미술관의 안내사인은 외부환경과 디자인 조화성이 떨어져 심리적 접근의 고려 부족		
(N)	기준	a.없음 b.개수 적거나 활용도 낮음 c.개수 많고 활용도 높음		
	내용	금일미술관을 제외한 4개소에서는 다양한 벤치, 램프, 가로등, 정원등, 쓰레기통이 구성		
(O)	기준	a.안전성 낮고 평탄도 미유지 b.안전성 낮거나 평탄도 미유지 c.안전성 높고 평탄도 유지		
	내용	5곳 모두 보도블록으로 바닥이 처리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미술관과 염황미술관이 차별없는 개방적 접근을 용이하게 처리		
(P)	기준	a.단독 주차공간 없음 b.자동차/자전거/전동차 주차공간 중 1개설치 c.모두 설치		
	내용	중앙미술관 미술관이 중앙시대 출입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4곳 모두 주차시설이 있으며, 그 중 한미림예술관이 가장 돋보임		

	(Q) 야외무대	(R) 광장	(S) 조형물	(T) 아트조명

예술	기준	a. 없음 b. 설치가능 공간 있음 c. 단독 설치			
	내용	영상 상영이나 예술 활동이 가능한 야외무대는 5개소 모두 없는 상태이나, 금일미술관과 한미림미술관은 설치가능공간이 존재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기준	a. 없음 b. 형성가능 공간 있음 c. 단독 형성			
	내용	현재 중앙미술학원미술관만이 광장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천 카페로만 계절에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준	a. 없음 b. 내부전시 상징성 미연계 c. 내부전시 상징성 연계			
	내용	금일미술관과 한미림 미술관에만 내부와 연계된 전시품이 있으며, 나머지는 아직 그 표현이 미흡한 상황			
	기준	a. 없음 b. 야간경관 연출 c. 야간경관 및 다양한 분위기 연출			
	내용	중국미술관은 외관전체를 강조하는 조명을 사용하여 예술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금일미술관은 조명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이색적 분위기를 연출			

5. 결론

본 연구는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에 있어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현황 파악 후 선진화로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은 선진적 수준의 도약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1) 맥락적 측면에서 기존의 주변 환경(도심계획)의 수직·수평축을 예술박물관의 외부환경에도 연장하여 비교적 축 중심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개관시기가 현대에 가까운 예술박물관일수록 다양한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실내외 연계공간에 흥미를 제공하였지만, 전시콘텐츠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다. 내부전시를 외부에 직간접으로 공개하거나, 연계성을 갖는 구성요소를 보완하여 공간의 연속적 체험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 예술박물관 상호간의 맥락적 요소가 고려된 외부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2) 문화적으로 북경은 전통요소를 기반으로 현대적 접목을 시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심지어 중국미술관은 중국적 전통요소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나머지 4개소 예술박물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마감재나 색상, 장식, 문양, 결구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물로 외부환경을 구성하였으나 문화적 감성이 표현된 외부환경 구성요소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나타났다. 단순한 형태나 결구방식의 모방을 넘어서 사회적 배경, 역사가 묻어나는 지역대표성에 대한 해석과 표현이 필요하다.

(3) 사계절을 갖고 평원에 위치하는 북경은 인공 환경의 발달로 자연환경을 구축하는 장치 개념의 외부환경이 조성되어있다. 따라서 계절적 변화를 고려한 녹지공간은 물론 평지지형의 특징을 다양하게 활용한 자연과 일체화된 공간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북경의 건축에서 인공

적 수(水)공간이 발달한데 반해, 실제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에서는 그 적용도가 적게 나타났다. 단독 수변공간 조성이 어려운 경우 주변 환경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공간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공원과 같은 일정 터가 있음에도 활용성이 명확치 않아 향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할 여지를 갖고 있다.

(4) 공공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여부 이전에 국가적 이념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시설이 제공되어 차별 없이 접근하는 것을 중시한다. 북경 소재 예술박물관 중 현대에 건립될수록 외부 편리시설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구축되어있지만, 예술박물관이나 주변 환경과의 일체감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설물 개별의 기능성을 발전시키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외부환경의 경계를 없애 외부에 개방하는 방법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측면에서 심리적 접근을 높여야 한다.

(5) 예술적으로 민간개념의 예술박물관에서는 외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전시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부조형물의 수량만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외부전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야외무대나 광장과 같은 시민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간접 참관 및 각종 창조활동을 위한 공간의 활용과 변이가 요구된다. 지역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외부환경 디자인의 상시적 표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 예술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트조명 등을 비롯한 공간적 배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북경 예술박물관의 모든 특징을 대표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주었으며 앞으로의 발전계획과 선진화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David Carrie, Museum Skeptism : A history of the display of art in public galleries. Duke University, 2006
- 中國文化產業 공식사이트 <http://www.cnici.gov.cn>
- 孔繁峙 外編, 北京博物館年鑒, 北京博物館學會, 北京燕山出版社, 北京, 2009
- Yoshinobu Ashihara, 건축의 외부공간, 김정동 역, 기문당, 1991
- 권영걸 외, 작품-인간-환경의 관계설정에 따른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45호, 2004
- El croquis, OMAMO Rem Koolhaas 1996-2007 II. 2007
- 辭海編輯委員會, 辭海 1999年普及本,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0
- 王恩涌, 북경의 형성과 개발 및 보존, 서울학 연구 Vol.1 No.4, 1995
- 아시아 경제, 서울인사동과 북경798의 차이, 2013.01.09 기사
- 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 2013.03.05 대회연설문
- 北京市第九次代中 北京市總體計劃(2005年), 2002.05 대회내용
- <http://www.todayartmuseum.com>
- http://www.hanmeilin.com/museum_b.php
- <http://www.cafamuseum.org>

[논문접수 : 2013. 12. 31]

[1차 심사 : 2014. 01. 24]

[게재확정 : 2014. 02. 12]